#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자

## 우간다 국영방송 UBC 등 3개 TV 5개 라디오 등 통해 전국 생중계 UBC 신년 메시지 녹화 등 '관심 집중'

박옥수 목사(오른쪽)가 우간다 기독교인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기쁜소식선교회 제공〉

한국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열린 '제17회 패스오버 페스티벌(Passover Festival)'에 주강사로 초청돼 10만여 명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만델라 국립스타디움에서 열린 패스오버 페스티벌은 제이콥 올라냐(Jacob L. Oulanyah)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2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기독교인 10만~15만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패스오버 페스티벌은 국가 최대 규모 송구영신 예배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오전 만델라 국립스타디움 컨벤션홀에 열린 '기독교지도자포럼(CLF)'에서 천여 명의 우간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세계기독교지도자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났다.

오후 8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지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우간다 국가와 현지 노래인 '얀수물루라(Yansumulula)' 등 공연은 10만 관객의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우간다 현지 언론은 한국에서 온 박옥수 목사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집중 조명했다. 국영방송사인 UBC를 비롯해 DreamTV, NTV 등 3개 TV와 5개 라디오 채널에서는 송구영신예배를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특히 UBC는 박옥수 목사의 신년메시지를 별도로 녹화해 방영했다.

90분간 신년 메시지를 전한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하신다'며 설교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셉 세루와다(Joseph Serwadda) 목사는 우간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초종교협의회의 지도자이자 BAF(Bon Again Faith) 목회자연합회 총회장으로 우간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2017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에 참석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박옥수 목사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조셉 세루와다 총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간다 전 기독교인에게 감동의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 박옥수 목사를 초청하게 됐다고 밝히며, "박 목사님이 우간다에 오신 것과 우간다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간다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박옥수 목사는 우간다 교육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신년만찬회에 참석했다.

박옥수 목사가 설립한 국제청소년연합(IYF)은 박옥수 목사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2012년 면담 이후 우간다 정부와 함께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난수부가 로즈메리 세닌데 기초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 산하 청소년 자문위원, 대학 총장 등은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교육이 우간다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은성 기자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우간다 국가를 비롯해 현지어로 공연을 하고 있다.

박옥수(오른쪽 두 번째) 목사가 2018년 10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세계기독교지도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17년 출범 기독교지도자연합 '급성장'

## 성경의 진리로 전 세계 목회자 깨우다

기독교지도자연합(CLF)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자!"는 슬로건 아래 2017년 3월 뉴욕에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8만 5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 할 만큼 급성장 했다.

이 가운데는 종교부 장관을 비롯해 수천 개의 교회를 관리하는 비숍과 교단의 총회장 등도 있으며, 기독교계의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케냐,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룩아일랜드 등 8개국 기독교지도자 25명이 CLF 목회자 연수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믿는 목회자들의 삶과 실제 경험담을 통해 성경에서 벗어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목회자로서 신앙에 대한 고민과 목회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복음'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에 공감했고,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확인한 뒤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CLF의 주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난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쉽다"며 참석자들에게 죄 사람을 얻게 하는 '회개'와 '참된 복음'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을 전해 세계 곳곳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한편 CLF는 출범이래 2년이 체 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 세계 최대의 대회장으로 우뚝 섰으며, 타락해 가는 기독교계의 어두웠던 곳을 밝혀나가는 중심이 되고 있다.

우간다 최대의 송구영신예배 'Passover Festival'이 열리고 있는 만델라 국립 스타디움.